

철강업계, 중후판 수출 확대 '수요부진·저가공습' 넘는다

美·유럽 등 판로개척 '구슬땀'
1분기 중후판 수출량 84.5만t
전년 동기대비 25% 이상 증가

국내 철강업계가 국내 수요부진과 해외 철강제품의 저가공습에 이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해외 수출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철강사들이 부진한 국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수출로 판로를 확장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중후판 수출량은 총 84만 5000톤이다. 지난해 67만 4000톤에 비해 25%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생산량은 214만 7000톤으로 지난해(215만 8000톤)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생산량은 유지되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은 키운 것으로 풀

이된다.

수출 지역별로 보면 유럽이 29만 5000톤으로 지난해(20만 4000톤)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일본과 미국은 각각 11만 1000톤, 6만 6000톤으로 집계됐다.

국내 철강사들이 해외 수출을 늘리는 요인으로는 자국 내 수요부진이 꼽힌다. 올해 1분기 국내 후판 내수 판매는 총 148만 8000톤으로 전년 대비 7.6% 감소했다.

후판 판매의 주요 고객사인 조선사의 경우 원가 절감을 위해 저렴한 가격을 등에 업은 중국산 제품 비중을 높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달 기준 국내 후판 유통가는 톤당 98만원이지만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은 80만원 후반대로 약 10%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저가를 앞세운 수입산 철강재가 시장에 유통되면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판가 인상이 제때 이뤄지

지 않는 것도 철강사의 수익성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선사와 철강사의 후판 가격 협상이 장기화되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자국 내 남아도는 철강을 처리하기 위해 저가로 밀어내기식 수출을 진행해 전 세계적으로 1억톤가량의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의 국내 후판 판매량은 1분기 38만톤으로 전년(34만 7000톤) 보다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한 것이 알려지며 국내 철강사의 미국향 수출 수익성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물량 자체가 적어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라는 분석도 따른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삼성전자, 'AI TV' 초격차 기술 뽐내

삼성전자가 지난 23일부터 24일(현지시간)까지 태국 방콕에서 테크세미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TV 핵심 기술들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2024년형 Neo QLED 8K와 삼성 올레드(OLED) 등 AI TV의 ▲화질 업스케일링 ▲인공지능(AI) 기반의 맞춤 화면 설정 ▲글래어 프리 기술 ▲액자형 스피커 '뮤직 프레임' 등을 소개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한화오션, 흑자전환 성공... 영업이익 529억

분기 실적 발표... 매출 2조 2836억
LNG운반선 등 고부가 선종 생산 증가

한화오션이 올해 1분기 52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한화오션은 매출액 2조 2836억원, 영업이익 529억원, 당기순이익 510억원 등 1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은 약 58.6%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LNG운반선과 같은 고부가 선종의 생산량 증가 등으로 인한 매출증가와 이익개선, 환율효과 등으로 경영실적

이 개선됐다. 특히 상선, 특수선, 해양 등 3개 사업분야 모두 매출 증대와 흑자전환을 동시에 기록했다.

올해 한화오션의 경영실적에는 고선가로 수주한 LNG운반선 건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한화오션은 올해 역대 최다인 22척의 LNG운반선을 건조한다. 내년에는 24척의 LNG운반선 건조가 예정돼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1분기와 같은 견조한 실적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바탕으로 각 사업분야별로 매출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23일(현지시간) 현대모비스 스페인 배터리시스템 공장 착공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공사 착공을 기념하는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스페인 'BSA' 공장 착공 (전기차용 배터리시스템)

年 36만대 BSA 생산... 폭스바겐 납품
전동화, 글로벌 수주 등 핵심사업 수행

현대모비스가 유럽 자동차 시장의 중심인 스페인에 전기차 배터리시스템 공장을 위한 전용 공장을 짓는다.

현대모비스는 23일(현지시간) 스페인 나바라주(州)에서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 폭스바겐에 공급할 전기차용 배터리시스템(BSA) 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BSA는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배

터리팩에 제어장치 등 전장부품을 합친 완제품을 의미한다. 고용량·고효율 배터리시스템은 전기차 품질과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부품이다.

스페인 공장은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한다. 공장 규모는 대지면적 약 15만㎡로 축구장 21개 크기다. 연간 최대 36만대의 BSA를 생산한다. 생산한 BSA는 공장서 약 14km 떨어진 폭스바겐 팜플로나 공장에 납품한다. 현대모비스의 BSA는 폭스바겐의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에 탑재된다.

스페인 공장은 현대모비스의 핵심 사업방향인 전동화와 글로벌 수주 확대 임무를 수행한다. 2030년까지 약 1700억 원을 투자해 최첨단 전동화 설비기술을 구축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스페인 공장을 글로벌 고객사에 특화된 전동화 표준모델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현대모비스는 한국과 중국, 체코에 BSA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며, 미국과 인도네시아에서도 전동화 핵심부품 거점을 건설 중이다.

/양성운 기자 ysw@

볼보그룹코리아, 창원공장 배터리팩 생산

2500㎡ 규모 생산 인프라 구축

세계적인 건설기계 전문업체인 볼보그룹코리아가 경남 창원공장에 아시아 최초로 그룹 배터리팩 생산 시설을 완공했다고 24일 밝혔다.

볼보그룹코리아는 지난 23일 창원공장에서 배터리팩 생산시설 완공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번 생산 시설은 지난해 2월 볼보그룹 본사로부터 약 100억원의 투자를 받아 구축했다. 1년여 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창원공장의 콤포넌트 생산 시설 내 약 2500㎡ 규모로 들어섰다.

이는 국내 건설기계 제조사 중 최대 규모의 배터리팩 생산 라인이다. 창원공장은 이번 배터리팩 생산 시설 완공으로 그룹 내 전동화 로드맵 이행의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됐다.

볼보그룹코리아는 2022년 4월 전기



앤드류 나이트 볼보그룹코리아 대표이사가 23일 볼보건설기계 창원공장 배터리팩 생산 시설 완공 오픈식에서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볼보그룹코리아

굴착기 양산 라인을 구축한 데 이어 배터리팩 생산 시설까지 완공하면서, 배터리부터 완제품까지 자체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배터리 수입에 따른 물류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기대했다. /양성운 기자

한화큐셀, 450MW 규모 태양광 사업 수주

美 TGC 대규모 '턴키' 계약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이 미국 상업용 태양광 시장에서 또 한 번의 대규모 계약을 따냈다.

24일 한화큐셀에 따르면 상업용 태양광 EPC 전문 자회사 '인에이블(Enable)'이 미국 에너지인프라 전문 사모펀드인 TGC(True Green Capital Management)와 총 450MW(메가와

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고 발전소 EPC(설계·조달·건설)를 수행하는 내용의 '턴키(turn-key)' 계약을 수주했다.

계약에 따라 한화큐셀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 동안 TGC가 미국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모듈 450MW를 공급한다. 인에이블은 발전소 EPC를 담당한다. TGC는 미국 전역의 건물이나 공장의 주차장,

옥상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상업용 태양광 사업과 커뮤니티 솔라(communitary solar)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구영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제조업 밖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한화큐셀의 사업 다각화 전략이 잇단 성과를 내고 있다"라며 "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력,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만큼 사업 기회를 선점해 안정적 매출 확보와 함께 사업 성장에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한국타이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e 스마트시티 AU56' 수상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세계적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에서 전기차 타이어 경쟁력을 입증했다.

한국타이어는 올해 출시 예정인 전기버스용 타이어 신제품 e스마트시티 AU56이 24일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제품 디자인 부문 본상

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e스마트시티 AU56은 첨단 기술이 적용된 펌프다운드로 제작됐다. 전기버스에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하며, 이전에 비해 높은 내구성(마일리지)을 보유하고 있다. 또 혁신적인 타이어 트레드 블록 기술을 적용, 향상된 접지력과 연장된 트레드 수명을 강점으로 한다. /양성운 기자